

지역경제 위기 극복 사업 발굴 앞장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관련 추진사항 점검·경제 활성화 보고회

군산시는 12일 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인해 생산 및 고용이 위축돼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해 부서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문동신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 및 읍면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군산시가 처한 경제 위기상황을 시 공직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서별 발굴 사업에 대한 보고회 및 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부서별 발굴사업은 지난 5일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사업과 더불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등 GM 관련 지원 사업 26건,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8건 등 총 64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 계획 중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퇴직자와 실직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부서에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사업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국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응모해 참여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계속적인 사업발굴과 함께 추진사항 점검 보고회를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 은혜와 감사의 손편지 쓰기 행사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는 오는 28일 원불교 대각개교절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실천을 위한 2018 은혜와 감사의 손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한다.

12일 원광대에 따르면 특성화사업단(CX-I) 지원으로 대학교당이 주관하는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과 함께 손편지 쓰기 캠페인' 일환으로 2015년부터 진행돼 왔으며, 4월부터 5월까지 재학생 등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대학교당은 원광학원 신명국 이사장과 김도중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학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시작을 알리는 우체통 제막식을 11일 갖고, 학생회관 앞과 한의과대학 입구 중앙도서관 광장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설치된 우체통 앞에서 손편지 쓰기 캠페인을 벌였다.

행사를 주관하는 대학교당 신지경 교무는 "원불교 대각개교절 경축과 함께 원광대 교훈인 지역경수 도의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이나 은사 자녀 또는 제자들에게 격려, 감사, 존경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쓰도록 함으로써 훈훈한 학풍조성과 함께 서로 소중한 이해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일자리창출 · 창업 활성화 위해 힘 모아

익산시 원광정보예술평등학교-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업무협약

익산시는 12일 익산시청에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원광정보예술평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에 특화·적합한 인재 양성, 창업활성화, 취업기회 확대 등 각 기관이 갖는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기반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원광정보예술평등학교는 식품산업인력 양성과 교내 창업동아리 육성 등 특성과 고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익산

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 발굴을 중점 실시하게 된다.

특히 원광정보예술평등학교는 교내 창업동아리 등 식품산업에 적합한 실무 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한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더불어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인재양성 교육에 필요한 산업체 감사, 입주기업 취업인턴지원 사업,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청년창업지원Lab. 참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익산시를 비롯한 3개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각 기관이 상호협력력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66년에 개교한 원광정보예술평등학교는 기업에 필요한 경영실무 기초능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향후 2019년부터는 청년창업가 및 회계·금융사무 인력 양성 체계 고도화를 위해 창업경영과와 회계금융과로 확대 개편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학교지원단 회의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진호)는 12일 관내 50여개 초·중·고 학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CYS-Net 학교지원단 회의를 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에서 열었다.

CYS-Net(군산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시민 및 관련기관·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지원·보호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 협업네트워크이다.

이번에 진행된 CYS-Net 학교지원단 회의는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각 학교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위기(가능)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산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사업 및 학교부청소년지원사업 공동사업 안내, 2018년 대한민국청소년바탕화면 행사 안내와 참여 홍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실질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은 "학교와 지역기관이 함께 지역의 위기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전북도 재정 신속집행 평가 대상 기관 선정

익산시는 전북도가 실시한 2018년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시군 평가에서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포장과 함께 시상금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그 동안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예산 3,222억원을 상반기 집행목표로 정하고, 김철모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운영해 주기적인 사업점검과 부진원인 해결 및 부서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행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3월말까지 1,506억원(25.94%)을 집행해 3년 연속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시상금 7천만원을 최근 미세먼지

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를 잡는 푸른숲 조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푸른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의 10월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 관련 익산을 방문하는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게 싱그러움 익산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중장기적으로 푸른숲과 외곽 산림의 연결을 강화해 비탄길을 확보하고 외곽의 깨끗한 공기를 도시로 유입시켜 열섬현상을 없애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저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서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 연찬회

전국 243개 지자체 예산담당 공무원 700여명이 참석하는 2018년도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연찬회가 12일과 13일 이틀 간 군산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연찬회는 2018년도 교부세제도 운영방향 설명 및 실무능력 증진,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교부세제도 운영방

향 설명 및 보통·특별·부동산교부세의 세부적 운영 제도, 교부세 감액제도 등에 대한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한준수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서 이런 전국적인 행사가 열릴 기쁘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의 실무능력 제고는 물론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여행 전북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보석대축제 관광객 대상 전북투어패스 1+1판매 이벤트

익산시는 전북도와 함께 2018 보석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보석박물관에서 전북도와 함께 투어패스카드 홍보 및 온·오프라인 1+1 판매 이벤트를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 행사는 보석축제 관광객들이 도내 14개 주요관광지를 전북투어패스로 알뜰하고 실속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투어패스 구입 및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고 투어패스 1장 가격으로 1장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

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가맹점인 보석박물관은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하면 성인 기준 3,000원의 입장료가 무료이며 인근 주얼팰리스 60여개 매장에서 평상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전북투어패스 익산권(5,900원), 교도소세트장(체험버스) 투어패스 패키지(9,400원), 김군익투어패스 고백버스체험패키지권(1만700원) 등이 있으며 정상가보다 20%~70% 할인된 가격으로 보석박물관 액션하우스 동물체험장,

익산교도소체험 고백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전북투어패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최근 자유이용가맹점으로 순환형익산시티투어를 가입한데 이어 익산역 주변의 문화예술의 거리 공방 맛집, 카페 등 15개를 특별할인가맹점으로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투어패스 자유 및 특별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익산여행도 전북투어패스로 알뜰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동북경제추진 명품도시 군산